메리츠 금융 Daily

은행/지주 Analyst 은경완
02. 6454-4870
kw.eun@meritz.co.kr

meritz 메리츠증권

2022년 5월 20일 (금)

News

우리은행, 주담대 만기 40년으로 확대… 5대 시중은행 모두 취급
조선비즈

우리은행, 주담대 대출기간을 다음 날인 20일부터 40년으로 확대… 대상 상품은 우리아파트론, 우리부동산론, 집단 입주자금대출 등
이로서 5대 시중은행 모두 40년 만기 주담대 취급… 대출자가 한달에 내야 하는 원리금 감소, 대출 한도 증액 효과

페이 수수료 '6개월' 마다 공시…소상공인 부담 줄어들까
이데일리

금감원, '빅테크 등의 결제 수수료 공시를 위한 작업반' 구성하고 첫 회의…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및 공시 방안 등에 대한 논의 진행
간편결제사업자들이 소상공인 대상으로 높은 수수료 취한다는 문제 인식 때문… 다만 수수료 서비스 구조가 달라 비교가 어렵다는 점이 한계

은행권, 비대면 주담대 경쟁 본격화···담보 대상 확대 '분주'
시사저널이코노미

시중은행들, 이미 출시한 상품 확대 개편과 더불어 은행권의 비대면 주담대 경쟁 본격화 전망… 하나은행, 최근 비대면 주담대 상품의 대출 대상을 확대 개편
인터넷전문은행의 행보 의식한 것으로 풀이…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앞으로 담보대상확대에 나설 방침… 케이뱅크, 아파트 신규 구입 자금에 대해서도 대출 가능하게 범위 확장 계획

SC제일은행, 타은행과 달랐던 급여체계로 '판관비' 다이어트에 성공
CEO스코어데일리

SC제일은행, 작년 특별퇴직 단행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가 본격 발휘되는 모습… 타 은행이 명예퇴직 시행에도 인건비 비중이 증가하는 것과는 대비되는 행보
올 1분기 4대 금융지주의 인건비는 KB금융을 제외하면 모두 전년보다 증가… 동사는 성과급제 도입해 차별점… 스타 마케팅을 하지 않는 점도 비용 효율화에 영향

금융당국, 건전성 위기 보험사 구제한다
한국경제

생명·손해보험협회, LAT 활용해 보험사의 자본 건전성 위기 해소하는 방안을 금융당국과 협의 중… RBC비율 틀 유지하며 부작용 최소화할 방안
올 들어 금리 급등하며 거액의 잉여금이 발생했고 일부분(40~60%)을 가용자본으로 인정하자는게 업계의 핵심 제안…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 발행 안해도 건전성 위기 해소

커지는 보험사 위기론…"해외실적도 떨어졌다"
이데일리

보허마들, 지난 1분기에 해외사업에서 실망스러운 성적… 삼성생명, 한화생명, 신한라이프, 삼성화재 등 12곳의 해외법인 1분기 순이익이 전년동기대비 30.8% 감소
삼성생명, 중국과 태국 두 법인의 순이익이 전년동기대비 80.4% 감소… 코로나19 확산으로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커지며 투자수익 떨어졌기 때문

키움證 348억 자사주 매입… "주주가치 제고"
머니투데이

키움증권, 자사주 40만주 장내 매수 예정… 취득예정 금액 348억 4,000만원, 전일(18일) 종가에 취득예정 주식 수 반영해 산출
자사주 지분 3.8%에 달해… 이번 매입 완료되면 지분율은 5.3%로 늘어날 예정… 사측은 주주가치 제고로 설명

증권사들 수탁업 진출 시동거나…운용업계 '환영'
뉴스토마토

대형 증권사들, 줄줄이 펀드 수탁업의 사업성 검토하며 수탁 시장에 지각변동 생길지 이목 집중… 운용업계에서는 수탁 대란 해소 계기될지 기대감 증가
NH투자증권, 올해 10월 목표로 펀드 수탁업 진출 준비… 증권사 중 처음… 대형 증권사들도 사업의 수익성 등 검토 중… 국내 6개 증권사들이 PBS라이선스 보유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